

## 여수룬이 차 버린 하나님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퍼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그러한데 여수룬이 살찌매 발로 밟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개역, 신명기 32:7~15]

### 조

강지처라는 말을 잘 아시죠? 조는 술 찌끼고, 강은 찔겨입니다. 술찌끼나 찔겨 먹으면서 신랑이 훌륭하게 되도록 뒷바라지 했던 부인을 가리킵니다. 가끔은 조강지처를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조강지처를 버린 인간은 쫓딱 망해야 되지요? 그런데 요즘 참 고약한 말이 떠돌더군요. '조강지처를 버려야 한번쯤 멋진 인생을 산다'는 모양입니다. 참 고약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도무지 천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시대가 되었구나 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어려웠던 시절에 고생했던 부인과 함께 사는 것이 진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위신이 좀 꺾일 듯해도 그런 부인과 사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아니 진짜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해 봅니다. 물 속에서 꼬물꼬물 하던 시절을 기억하면 물이든 육이든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대부분의 개구리는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개구리만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잘 기억하는 듯싶어도 사실은 다 잊어버리고 지냅니다. 중학교 아이들에게 일기를 쓰되 절반이나 1/3 정도는 자기가 아는 영어단어를 넣어서 영어 반, 우리말 반으로 일기를 써 오라 해 놓고 검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검사를 해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못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썼던 일기장을 찾아보니까 제가 더 못했더라구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애들이 대강대강 쓰는 것 같아도 귀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일기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저는 이 아이들보다 훨씬 잘 했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 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반에서 몇 등이나 하고 다녔는지 아십니까? 그걸 알고 계신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텐데 대부분의 어른들은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잘 못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실제로는 못했음에도 우리 아이들보다는 나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과거에 입은 은혜를 잊고 삽니다.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친구, 오늘의 내가 있도록 이끌어 준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잘 잊어버리고 삽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말로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그것이 감격스럽게 다가와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뒤돌아 보았더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다는 감격을 느낀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내가 지난 날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이 진정한 고백이라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안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조차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실패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반대로 은혜를 받아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기억하라, 물으라고 합니다. 뭘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해 두라는 겁니다. 자식들이 '그때 우리는 없었는데요?' 하거든 '물어서라도 알아두라'고 말합니다. 기억하고 생각하라 그리고 자기만 품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이런 체험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막연히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체험이 없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고달파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보통 부지런해서 되는 일입니까? 이런 감격없이 부지런히 예배당에 쫓아다니고 일하려면 얼마나 고달프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열심을 내게 합니다. 열심히 뛰어도 스트레스 안 쌓이는 주원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들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민족들의 경계를 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염두에 두고 나라를 쪼개고 인종을 나누고 민족을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9절을 붙여서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와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곱이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야곱을 기준으로 해서, 야곱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나누고 경계를 정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세계 역사를 훑어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그저 한 페이지 나올까말까, 없습니다. 고대의 큰 나라들 바벨론, 앗시리아, 헬라제국, 로마, 페르시아를 위시하여 얼마나 많은 큰 나라들이 주변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집트도 있었네요. 그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저 한 두 페이지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세계사의 주류는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역사가, 이런 나라가 세워지고 흘러가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효를 감안해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고 말합니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종 관심은 세계 역사를 주름잡았던 이 나라들이 아니라 한쪽에 있는 듯 마는 듯한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속 역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수 많은 나라들과 수 많은 민족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감격인지 그걸 생각하고 기억하며 자손들에게 대대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역사가 보는 역사와 신앙의 눈으로 보는 역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애굽의 7년 흉년, 7년 풍년이 왜 생겼습니까? 기후 탓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흉년, 풍년을 주셨다면 누구 때문입니까? 가나안 한쪽 귀퉁이에 있는 야곱의 가족 때문입니다. 그들을 이곳에 불러들여서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왜 애굽에 갔습니까? 뭣 때문에 요셉이 팔려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로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7년 흉년, 7년 풍년이 일어난 겁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갈 때 거기에 엄청난 태풍이 휘몰아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그 배에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도망가면서 저 밀창에서 쿨쿨 자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아이들이 몇 백 명이 뛰어 놉니다마는 엄마의 관심은 자기 아이 하나에게 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수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크고 강대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한쪽 귀퉁이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잊지 않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1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며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언제 자기 백성을 황무지에서 만났습니까? 언제 광야에서

만났습니까? 황무지와 광야에서? 출애굽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때 광야에서 만나고 보호하시고 돌보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광야에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 눈동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참 많습니다만 조금만 합시다. 눈썹이 있습니다. 혹시 먼지나 물이 떨어지면 옆으로 흐르도록 막아줍니다. 눈썹과 머리털은 비슷해 보이지만 참 다릅니다. 어떤 분이 눈썹이 다 없어져서 머리털을 이식해서 심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 죽더라고요. 머리털 밑의 혈관과 눈썹 밑의 혈관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털로 가는 혈관을 수도 파이프 연결하듯이 당겨 눈썹 밑에까지 끌어와서 머리털을 이식했더니 괜찮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점이 이발을 해 줘야 하는 겁니다. 눈썹은 특별하게 만든 특수한 털입니다.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속눈썹도 있고 주변에 뼈가 둘러싸고 눈이 폭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얻어 터져도 눈 주위가 시커멓게 되는 수는 있어도 눈알이 다치는 경우는 적습니다. 다치지 않도록 보호가 잘 되어 있는 겁니다. 눈물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울 때만 씩니까? 평소에 계속 눈물이 흐릅니다. 눈알을 계속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눈알에 들어가는 이물질들을 계속 씻어냅니다. 눈알을 씻은 물은 어디로 갑니까? 하수도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서 눈 밑을 살짝 당겨보세요, 구멍이 하나 보일 겁니다. 그게 막히면 눈물이 밖으로 계속 흐릅니다. 하수도 설비까지 되어 있습니다.

눈물은 또 눈알이 잘 돌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름칠을 하는 거죠. 눈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안구건조증이라고 안약을 계속 넣어야 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눈에 평생 참기름을 넣고 사셨대요. 텔레비전에서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할머니가 참기름 병을 차고 다녀요. 의사가 별 이상은 없다고 했던 것 같아요. 눈물 덕분에 참기름을 안 발라도 자동으로 세척되고 눈알이 잘 돌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눈꺼풀도 있습니다. 눈꺼풀의 무게가 얼마입니까? 만 천 근이라고 합니다. 왜요? 천근만근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왜 무겁습니까? 강제로라도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뭐가 날아오면 손을 아무렇게나 올리면 바로 눈에 와 닿습니다. 눈을 보호하기 위해 손이 정확한 위치에 대기하는 겁니다. 눈도 두 개가 있는데 동시에 일하지 않습니다. 교대로 일합니다. 이 쪽 눈이 한 70% 보고 있을 때 이 쪽 눈은 쉬니다. 30%만 일을 하다가 자동으로 교대를 한답니다. 그래서 한쪽 눈이 다치면 반대쪽 눈도 실명할 가능성이 높답니다.

우리 몸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보호하셨다고 합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입을 게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다 채워 주셨습니다. 추위를 불기둥으로 막아 주셨고 더위는 구름기둥으로 막아 주셨습니다. 주변에 적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마는 다 막아 주셨습니다. 그걸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생각해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라고 말합니다. 눈동자같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고 말합니다.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퍼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엮는 것같이' 이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연단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절벽 위에 짓습니다. 거기에 새끼를 낳았는데 이 새끼들이 그 보금자리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으면 집 자체를 흔들어서 떨어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떨어지면 어미가 날개를 퍼서 받아 가지고 높이 올라가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죽지 않으려면 날갯짓을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해서 독수리가 새 중에 새, 왕 중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독수리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튼튼한 독수리로 만들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내서 연단을 시키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건데 수산대학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수영을 가르치는 좋은 방법이 배에 신고 저만큼 나가서 빠뜨려 버립니다. 안 빠져 죽으려면 허우적거리야 되지요. 배가 따라오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

으면 건져 올립니다. 좀 쉬게 해서 또 밀어버립니다. 하루 만에 수영을 다 배운답니다.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방법이지만 빨리 배우는 데는 그것만큼 빠른 방법이 없을 겁니다. 물이야 먹고 간이야 떨어지긴 하겠지만 빨리 배웁니다. 독수리 새끼 키우는 것이나 그 수산대학에서 수영 가르치는 것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키워주셨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부모들은 아이들을 너무 약하게 키웁니다. 어저께 신문에서 본 일본 얘기입니다. 일본에 헬리콥터 부모가 많다고 합니다. 자녀 주위를 뱅뱅 돌면서 안 떠나는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대학 입학시험 치는 감독관에게 대학 입시 센터에서 그 교실 온도를 높이라고 지시가 떨어졌답니다.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시험 치르는 학생이 감독관에게 '교실이 너무 춥다'는 말을 못해서 쉬는 시간에 엄마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엄마가 그 전화를 받고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고 교감 선생님이 대학 입시센터에 전화를 해서 감독관에게 지시가 내려 왔다는 겁니다.

일본 속담에 '부모가 고생을 하면 자녀는 편할지 몰라도 손자는 거지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좀 강하게 키워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혹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부닥치느냐?'는 생각이 들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독수리 새끼 키우듯이 연단시키시는구나'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연단을 시키셨다. 이스라엘아! 이걸 생각하고 기억하고 자손들에게 들려주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더 나옵니다.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원주민들과 싸워서 땅을 차지합니다. 이 구절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차지하는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전쟁에서 고지를 빼앗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모세가 손만 들면 이기게 하셨잖아요? 여리고 성은 그냥 열심히 돌아서 이겼잖아요? 나중에 진짜 큰 전쟁을 치를 때 보면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숫자보다 하늘에서 내린 우박에 맞아 죽은 숫자가 더 많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밀어주십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젖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거기에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신명기 기록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르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앞으로도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이걸 기억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고 감격하고 후손들에게 전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먼 후일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합니까? 15절을 보세요. '그러한데 이스라엘이 살찌매 발로 찼도다' '그러한데'가 뭐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잘 먹고 잘 살고 살이 찼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발로 찼다는 겁니다. 누굴 차요? 아니 여수룬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먹고 살찌니까 발로 찼다는 겁니다. 누굴 찼다는 겁니까?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누구를 찼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찼다는 겁니다.

여수룬이라는 말의 뜻은 곧은 자, 바른 자, 정의로운 자, 정의롭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도무지 이름값을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연단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줬는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찼다는 겁니다. 배은망덕이죠. 곧은 자, 바른 자, 정의로운 자가 배은망덕한 짓을 했다는 말입니다.

가령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성적을 불러 줍니다. "홍순관 0점" 이러면 아이들이 좋다고 웃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목소리를 좀 높입니다. "손지혜 0점" 왜 목소리를 높일까요? "야, 이름이 지혜라면서 0점이 뭐냐?" 그런 얘깁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손지혜 집사님은 괜찮지 싶습니다. "이름이 지혜잖아,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런 의미로 소리가 조금 커집니다. '여수룬이 발로 찼도다' 곧은 자, 바른 자라는 이름을 가진 여수룬아 네가 이 배은망덕한 짓을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이런 짓을 할 것이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디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앞으로 갑시다. 31장 20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살진 후에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하나님께서 노래를 하나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노래 가사 속에 오늘 읽은 본문이 들어 있는데 그들이 지금은 뜻도 모르고 부르지만 나중에 환난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 처지가 왜 이러냐?'고 할 때에 문득 이 노래 속에서 답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 미리 노래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실령 그렇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생각하고 돌아서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수룬이 차 버렸습니다. 누가 차였습니까? 말로 하기는 거북하지만 하나님께서 차인 겁니다. 젊은 처녀 총각들이 사귄 때 조심해서 사귀고 만약에 싫더라도 함부로 차지 말고 조심스럽게 잘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함부로 찢다가는 큰 일 납니다. 자칫하면 큰 사고 납니다. 조강지처를 버려도 잘못하면 천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차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일 것 같은데... 그걸 잘 보여주는 예가 호세아입니다. 남편 버리고 집 나가 버린 아내를 찾아 나선 호세아의 모습이 자신을 발로 차 버린 여수룬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호렘산에서 처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정말 두렵기 그지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참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타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말을 잘 들겠느냐?' 백성들이 '잘 들겠습니다'고 했습니다. 그 때 하신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데요. 어울리는 말일까마는 그게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좇으면 내가 질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32장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하나님을 발로 차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좇아다닙니다.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은 질투심으로 견딜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끝내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돌보시며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알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먹고 살지면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어렵고 힘들 때 열심히 기도합니까? 잘 먹고 잘 살 때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얼마 안될 때는 십일조 하기가 쉽습니다. 버는 것도 얼마 안되지만 드리는 것도 쉽대요. 많아지면 어려워진답니다. 우리 본성이 이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고 싶어도 껍뻍 주시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부유하게 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배 부르고 살찌니까 나를 차 버렸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저 효자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면 저 놈들이 나를 찢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유해질수록, 먹고 살쩔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 자라지 않은 채로 경제적으로 부해지는 것은 복이라기보다 화가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진 후에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심사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니 하나님을 버리더라? 이걸 조강지처를 버린 것보다 더 고약한 짓입니다. 나를 이렇게 키워준 부모를 버린 놈보다 더 나쁜 짓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잘 삽시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당하고 힘들게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어놓고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배가 부르고 넉넉하면 우리의 기도가 더욱 간절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걱정거리가 있고 힘들면 기도가 간절해지잖아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면 새벽에 한번 나오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배 부를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지를 생각하시면서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고3이 되면 엄마들이 새벽기도에 나옵니다.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그 아이가 합격을 하게 되면 안 나와도 되지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여기실 가능성이 많은 일입니다.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작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생각하라, 자손들에게 들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네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자손들에게까지 들려주라고 하신 말씀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결코 섭섭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복을 주셨다고 생각이 들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